

# 열린 플랫폼, 닫힌 예술



홍경안 역  
시시일각

예술의 권위는 전통적으로 전문적 훈련과 정제된 언어를 바탕으로 한 비평적 판단을 통해 이뤄졌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구별짓기』(1979)에서 체계적으로 논증했듯, 예술적 취향이란 계급적 아비투스(Habitus)의 투영이며, 비평은 그 취향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 권력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였다.

그러나 동시대 예술 생태계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헤시태그와 알고리즘이라는 직관적 체계가 비평적 담론을 대체함은 물론,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짧은 글과 숏폼 콘텐츠, 그리고 '시각적 쾌락'에 기반한 즉각적 공유 가능성은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

오늘날의 관객에게 작품을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수동적으로 침잠하는 행위라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서사적 참여'에 가깝

다. 예술가들 역시 완성된 결과물보다 제작 과정의 공유와 실시간 소통을 우선시하며, 창작과 수용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미술관과 갤러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공립미술관의 전시홍보자료에 조회수를 적시하고 성과 지표로 활용한다. 전시의 성패를 가능케 하는 척도 또한 주요 미술 저널 및 신문 칼럼의 비평적 판단이 아니라, 플랫폼 다수가 생성하는 '좋아요'와 인증샷의 누적량, 화제성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전환은 예술가치의 준거 자체가 내재적 미학 논리에서 '가시성의 경제'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부각은 표면적으로 민주화의 외양을 띤다. 언뜻 보면 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개방성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종류의 게이트키퍼를 낳는다. 그건 참여율과 팔로워 수가 창작자의 위계를 결정하거나 알고리즘의 비가시적 논리가 노출의 구조를 편향시키는 것, 그리고 철저히 파편화되는 예술 경험이다. 자유로운 접근성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셈이다.

특히 '가시성의 편향' 문제는 예술 경험의 본질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알

고리즘이 제공하는 피드는 이용자의 과거 반응을 학습해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한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가 낯섬을 통한 자기 확장, 즉 자신의 감수성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탈경계적 경험이라면,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유사한 것만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예술 경험은 축소되거나 폐쇄로 나아가간다.

이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태도만으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미술관과 갤러리가 조회수 대신 깊이 있는 감상의 조건을 설계하고, 플랫폼 바깥에서 작동하는 비평과 담론의 장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동시에 수용자의 의식적 재구성도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흐름에 수동적으로 올라타는 대신, 느리고 불편하지만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예술을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조회수가 아닌 자신의 감각으로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예술 경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미술평론가

# K-제약, 낡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들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릭 약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고, 업계는 산업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약가 관련 사안은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제약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제약협회는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철단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혁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 미국 기업의 혁신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5년 46%에서 2025년 3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4%에서 30%까지 급증했다. 10년 전만 해도 42%포인트에 달했던 양국 격차는 이제 3%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

임상시험 속도도 중국이 앞선다. 단일 국가 기준 임상 1상과 2상은 미국보다 평균 50%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훨씬 낮다. 한때 '복제약 국가'로 불리던 중국이 주요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국내 제약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적외로만 살펴봐도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제약 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 논쟁이 비용 관리에 머물러 있

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보상 강화라는 구태의연한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업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과 바이오 신기술을 내놓는 경쟁은 이미 가속화됐다. 업계 또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래 시장을 주도할 빅파마로 도약하거나 대형 품목을 보유하고 보기는 어렵다. 한 제약 업계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 하긴 하나"라는 질문은 늘 있었고 "그 의구심만큼 수많은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 노력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 냉정한 진단 위에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mlee236@metros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1일 (음 1월 23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시간을 투자하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60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72년생 과거 헤어졌던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84년생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49년생 작은 것을 원했으나 큰 것을 얻게 됩니다. 61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73년생 방향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85년생 많은 이들과 어울리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50년생 어렵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62년생 뜻밖의 인연이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남자는 비교적 순탄하나 여자는 다소 곤란합니다. 86년생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조금 부족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3년생 아랫사람을 챙기면 언젠가 도움을 받습니다. 75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87년생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52년생 기본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64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잠시 미루세요. 76년생 익숙한 환경보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88년생 흔들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현 상태를 꼭 사수하세요.



53년생 큰 일을 이뤄 행복하게 됩니다. 65년생 작은 근심을 버려야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나 일은 이루어집니다. 89년생 님도 보고 병도 따는 하루입니다.



5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6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합니다. 78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90년생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 보세요.



56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68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 진전이 더 알찬 하루입니다. 80년생 가까운 사람과 불화가 조심하세요. 92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57년생 때를 만났으니 바라던 성공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1년생 다름을 허락하면 참고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모든 일이 막힘 없이 술술 풀립니다.



58년생 생방이 만족할 만한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사리판단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82년생 과욕을 삼가면 순탄히 흘러갑니다. 94년생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59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1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가까운 파트너를 돌아봐 주세요. 95년생 진로문제로 갈등이 있겠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필자는 2026년 3월 7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웬 법학을? 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날부터 법의 세계를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마음을 학교로 옮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법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 법은 법의 세계를 좀 더 알면 사회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법을 바탕으로 사람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고 책임 의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필자의 아가~사랑하는 나의 아가! 김 산! 사건의 영향이다. 金山은 반려 아가였고 아가는 어느 날 토사곽란이 발생했다. 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니 입원을 시키라 했다. 수의사의 말대로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한여름 장마와 무더위가 최고조로 심할 때 2024년 7월, 장맛비가 오던 날, 내 아가는!! 토사곽란으로 기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던 김 산이는 무더위 찜통, 찜통 속에서 지장보살님 곁으로 갔다. 정신 차리고 보니 병실에는 에어컨이 없이 찜통이었다. 차라리 그냥 집에 있었었다면, 애초에 잘 모르는 병원엘 데리고 간 필자의 첫째 잘못, 병원 위생상태나 간호구조를 살펴도 안 보고 밤새 아가 혼자 두고 온 둘째 잘못이다. 아가가 없는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프고 아파서 고통스러웠으나 필자가 수의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의 무력함. 차가운 이성으로 참아낸 필자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아가 김 산金山을 데려왔다. 책임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걸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운 아가 金山과 겪은 아픔으로 10년 계획을 세웠다. 필자 미래의 사명은 내 아가 金山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법대를 졸업하더라도 로스쿨 진학이 매우 어렵다지만 내 사랑 아가 金山을 그리며 진행해 가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3	4		7		2
	8							
	4	3						6
6				3			4	
1	8					5		7
	2			7				3
4						2	8	
							1	
8	1		5	6				4

5	7	2				8		9	
	6		3	1				2	
		9	7						
				1	3				
	8			2				4	
					7	4			
						7	3		
7				9	1			8	
	1		4				9	5	7

7	2	9	9	2	1	6	8	
9	1	9	6	8	7	2	2	
6	8	2	1	2	9	9	7	
8	9	1	9	2	8	7	6	
2	2	9	7	6	9	8	1	
8	7	6	2	1	2	9	9	
9	9	8	1	2	6	8	7	
1	8	7	2	9	9	6	2	
2	6	2	8	7	8	9	1	9
2	9	6	8	9	7	8	1	2
9	8	2	1	6	9	8	7	2
7	1	8	2	8	2	9	6	9
6	2	8	9	8	1	2	9	7
8	9	7	2	9	2	6	1	2
2	2	9	6	1	8	7	9	8
8	6	1	8	7	9	2	2	9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